

# 사설

## 월하스님의 성명서

해방 이후 불교의 변모와 혁신은 이른바 '정화'라는 이름으로 행해져 왔다.

정화개혁이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할 때 모든 사태는 예고된 것이었다. 월주 전 총무원장의 삼선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조계사의 무단점거를 정당화할 수 없다. 삼선관계는 어떠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 시비를 가리고 출마의 당부를 결정했어야 했다. 그런 점에서 전 총무원장이 조계사점거에 놀라 출마를 포기한 것 또한 심오원리가 아니었다. 물러나는 것도 절차와 방법을 따라야 했다. 그러지 않고 총총히 물러났기에 조계사의 난입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 셈이 되었다.

역시나 그들은 점거의 명분이 사라졌어도 물러나지 않고 폭력으로 대처해 불제자들과 온 국민에게 지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 일의 중심에 월하 스님이 있다. 새 집행부가 들어오고서도 무슨 혁명분자들처럼 별도의 총무원을 구성하고 조직체계까지 갖추더니 안되겠다 생각했던지 이번엔 성명을 발표했다. "송월주 삼선출마에 다수 승리가 제지하여도 제지가 안되어서 본인도 삼선을 저지하기 위하여 손을 댔든 바, 삼선을 막게 되었으면 쪽하게 생각할텐데 본의 아니게 확대되어 천만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중단 운영방침대로 운용하기로 통도사 전원대중이 합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은 이 성명에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그렇지만 내용에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언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전 총무원장'이라는 직함을 빼고 '송월주'라는 이름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심한 결례이다. 이것은 공격 문제를 사적 감정과 혼동하고 있는 극명한 징후이다. 또 중정중도면 사태를 독자적으로 판단하

고 그 판단에 책임을 질 태산교와의 기상이 있어야 한다. "본의 아니게 확대되어 천만 유감스럽다" 안에는 자신의 책임과 역할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유감스럽다'는 말에서 우리는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모호한 사과문을 듣고 느끼는 분통이 치민다. '순용'이란 말도 마찬가지로 다. 자발적 선택과 판단에 의해 공격 합법적 질서를 존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살지만 마지 못해 끌려가겠다는 뉘앙스가 담겨있다.

일반대중들은 이 정도에서 사태를 봉합하고 마무리하자 하겠지만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이런 사태는 분명 다시 재발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 불교의 미래가 없다. 적어도 이번 사태에 대한 분명한 규명과 책임당사자의 정확한 사과를 받아야 한다. 아니면 다른 불교개혁회의에 간여하던 사람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월하스님은 슬그머니 꼬리를 뺐다. "사중에서 하도 압력을 가하니깐 낸 것이니 크게 신경쓰지 말라." 천년넘어 우리 문화와 전통의 자원이자 핵심을 형성해 온 불교가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과거의 일로 묻힐 것이다. 종정의 성명은 그저 불바람인 듯 남의 일로 일별하고 지나갈 일이다. 대중적 전망에서 그리고 새 집행부의 면모와 의지에서 큰 희망을 잃는다. 근대불교 100년의 절망과 상처를 듣고 이제 불교는 근본정신을 바탕으로 대중과 호흡하는 새로운 불교의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불교는 언어와 문자를 버리면서 상식까지 무시했다. 인간은 세속의 연가법 안에 있고, 그런 점에서 사회적 존재성을 떠날 수 없다.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보다 긴밀하고 활발해져 가는 미래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이 점을 우리 불교인들은 깊이 새겨야 한다.

# 불교TV 좌초위기... "살려야 한다"

불교TV가 경영난으로 인해 뉴스를 제외한 전 프로그램 제작이 중단되는 등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다.

불교TV의 좌초위기는 70여억원에 달하는 악성 부채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케이블TV 정책 실패에 의한 가입자 수 감소와 경영진의 무책임도 정상화를 위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불교TV는 지난해 12월28일 정기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신하스님(포총사주지)을 중심으로 11명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암스님(부산 녹아원주지)을 사장 권한대행으로 임명했다. 회암스님은 1월15일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신하스님은 대표이사 등기이전을 계속 미뤄오다가 법적 시한을 넘긴 1월21일야야 등록을 마쳤으며 노조 집행부와도 면담에서도 "최소비용과 최소인원으로 회사를 운영해 5월까지 정상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부채: 불교TV는 국민은행 23억원, 동원파이낸스 18억7천만원, 보람은행 8억6천만원 등 은행권 단기 부채 50여억원과 미지급금 20여억원을 합해 총 70여억원의 악성 부채를 안고 있다. 특히 은행권 부채 50여원은 IMF사태 이후 높아진 대출 금리 등으로 눈덩이처럼 이

## 부채 70여억원 갚을길 없어 발동동 뉴스제외 프로그램 재방 '초긴축 경영' 범종단 지원 절실... 유료 의무전송되면 '숨통'

자가 불어나 직접적인 경영 위기를 초래했다. 이 금융부채를 갚기 위해 지난해 2월 30%의 인원 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8월부터는 상여금 없이 50%의 임금만 지급하는 등 초긴축 경영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월 1억원에 달하는 부채이자와 케이블TV 가입자 감소로 인한 수신료 수입저하 등으로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진 상태. 은행권 부채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상환만기 50억 원의 국민은행 여의도지점의 부채이자 3억4천만원. 4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연기해온 이 부채는 상환만기 법정 시효 일인 6개월을 훨씬 넘겨 원금인 20억원까지 한꺼번에 갚지 못할 경우 부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작 중단: 3방영체제로 편성해온 불교TV는 지난해 12월20일부터 뉴스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 제작을 전면 중

단하고 재방영 체제로 들어갔다. 프로그램 제작비가 9월 이후부터는 거의 책정되지 않아 프로그램 제작비를 협찬 받은 상태. 이런 상황이다 보니 뉴스팀 7명을 제외한 80여명의 직원들은 책상만 지키고 있는 처지.

1월18일 열린 팀장회의에서는 경영 정상화가 이뤄질때까지 1일 두차례 내보내던 'bm뉴스'를 오전 방송만 편성키로 했으며 일부 협찬 프로그램에 한해 서단 제작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노조: 노동조합(위원장 신동우PD)은 1월21일 비상 총회를 개최하고 무책임한 현 경영진의 각성을 촉구했다. 신동우노조위원장은 "무책임한 경영이 지속 될 경우 새 경영진 물색도 영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회사의 긴박한 상황을 호소하고 교계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불교TV 살리기' 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타개책: 조계종은 그동안 책정돼 왔던 1억원의 지원금을 이번 회계예산에서 제외시켰다(관련칼럼 6면). 이사종단인 천태종을 비롯 진각종 총지종 등도 종단내 사업과 재정 수입 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관망하는 자세. 천태종 총무부장 국성스님은 "지난해에 만도 1억원이 넘는 프로그램제작비를 지원했다"며 "현재 금강불교대학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더 이상의 지원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종단들이 안고 있는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불교TV를 살리기 위해서는 범종단적 지원 밖에는 기별 언덕이 없다. 30억원의 단기 악성부채를 우선 해결해야 하는데 이러한 거금을 마련하는 데는 전 종단이 '영상 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해 힘을 모아야 하기 때문이다. 30억원의 부채만 해결한다면 한달에 4억원 정도가 드는 전반적인 운영비는 수신료, 광고료, 수익사업 등을 통해 어느 정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정상 운영이 가능하다. 또 3월에 발표되는 방송통합법안에서 종교3사가 그동안 꾸준히 요청해 왔던 종교채널의 유료의무전송만 이뤄진다면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주필 기자(jikim@buddhapia.com)

## 직할교구 활성화 28억원 투입

### 조계종을 예산 어떻게 쓰여지나

조계종의 올 예산 총액은 2백20억5천여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6% 증가했다. 조계종의 전체 예산은 늘어났으나 이는 시설과 신도교무 등 특별회계분이 포함됐기 때문이며 실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에 비해 5.5% 절감된 1백39억4천5백만원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특별회계 전출금 35억원을 제외하면 순수 일반회계예산은 104억4천5백만원 규모다.

순수일반회계 예산은 총무원이 54억여원을(전년대비 6.2%절감), 교육원이 31억여원(6.9%절감), 포교원이 14억6천여만원(22.4%절감), 중앙종회가 3억8천여만원(2%절감)을 쓸 계획이다. 총무원 총무부는 올 예산 중 직할교구 활성화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편성해 28억여원을 책정했으며 기실은 종단 종합전신망 구축에 상당한 예산을 집중해 3억2천여만원을 편성했다. 재무부, 사회부, 문화부, 복지재단 등

의 부서들도 10%가량씩 절감 편성한 예산으로 긴축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교육원은 교육지원 및 평가를 위한 교육전문인력 관리 육성과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사업에 예산의 중심을 실었다. 포교원이 타기관에

### 종단전신망 구축 포교인력 중점 양성 '개·사운동' 지속

비해 큰 폭으로 예산을 절감한 것은 신도등록관련 전산 입력비의 소요원인이 소멸됐기 때문. 포교원은 포교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을 중점 사업으로 꼽고 있다. 총무원 청사(불교회관) 신축 비로 개정된 시설특별회계는 금년 예산 전입금 20억원과 전년대 이월금 30억원 기타 수입을 합한 52억 5천만원 규모. 조계종은 이 예산 가운데 19억여원을 조계사 인근 부지매입과 기본조사

설계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34억여원은 적립할 계획이다.

중앙승가대이전 특별회계 예산의 규모도 50억여원이며 여기에는 95년부터 97년까지의 미수분담금 17억여원이 포함됐다. 신도교무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이월금과 올해 예산을 합쳐 10억7천여만원으로 계속 적립하며 신도조직화 사업 등에 쓴다는 것이 조계종의 방침.

28일 폐회된 제138회 중앙총회는 총무원 기실실이 총괄 작성한 올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그러나 세입 예산 가운데 특별분담금과 직영사찰 분담금은 다소 조정될 전망이다. 종회가 분담금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예산을 합쳐 10억7천여만원으로 계속 적립하며 신도조직화 사업 등에 쓴다는 것이 조계종의 방침.

임연태 기자 (ytlm@buddhapia.com)

## 기념조형물 제작·학술발표·연극등 종교지도자협 '3·1절 행사' 다채

종교지도자협의회(대표회장 지덕)가 80주년을 맞는 3·1절을 전후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제2건 국운동의 동참과 종교간 화합을 고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교지도자협이 준비하는 행사중 가장 주목 받는 것은 가미 독립선언서를 인쇄했던 보성사 옛터인 조계사 옆 수송공원에 기념 조형물을 제작하는 것. 조형물은 높이 6미터의 화강석으로 각종교의 3·1운동 참여장면과 독립선언서 전문 등이 새겨져 있다. 추진위는 2월말에 이 조형물을 수송공원에 세운다.

추진위는 3·1절 당일 탑골공원에서 기념식과 현장 대경진, 기념공연을 개최할 계획이다. 불교와 개신교는 '국난 극복과 21세기를 향한 3·1정신 계승방안'을 주제로 하는 학술발표회를 준비한다. 임연태 기자

## 98년 현대불교 합본집 발간

1998년 한 해동안 발행된 현대불교신문(98년도판 합본집)이 나왔습니다. '98년 불교사의 흐름이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이 합본집은 시사불교와 이해하기 쉬운 교리, 그리고 신형의 길잡이가 필요한 불자들도 좋은 지침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 권씩 소장하시고 또 이웃에게 발표하시기를 권합니다.

- 수록내용: 1998년 1년분(157호~204호)
- 가격: 1권 60,000원(우송시 5천원 추가)
- 은행입금: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023-25-0007-617 농협/053-01-227471 우체국/010041-0255243
- 문의: 기획관리부 (전화 02-737-8881)

정신건강연구소

현대만평



다시 올 일이 없기를...

## 공고문

아, 이럴수가! 부산시 강서구 소재 육주사 분규의 진실을 고한다. 실제기 없는 가짜 육주사 주지 김상문(현업)은 조계종 역사이후 유일무이한 패륜 범죄자로서 육주사에서 98.12.11일 축출되었으며 이대취 문도회에서 제명 축출 되었음을 알립니다.



현업

### 1 패륜 범죄 사실개요

- 가.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셨던 이대취 큰스님을 문서상 사기꾼으로 매도 탐재한 사실.
- 나. 가짜 육주사 주지직 10년을 살기도 법원에서 검인된 이대취큰스님의 유언이 잘못되었다며 육주사 창건주 권한 승계권 입증서를 날조한 범죄사실
- 다. 이대취 큰스님께서 59년도 설립한 육주사를 55년 김상문(현업)이 4살 때 설립 창건한 것으로 사실사람 등록 서류를 날조한 범죄사실
- 라. 김상문(현업)은 서예가 모씨글을 다량복사 현업 자신의 낙관을 찍어 자신의 작품처럼 신도에게 배포 세상을 우롱 시중 잡매도 할 수 없는 도덕적 범죄행위 (\*상기 4항의 범죄사실 입증서류는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에 제출되었음)

### 2 상기 김상문(현업)은 유언수임 집행자 진우 비구스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2년 10월 15일 입적하신 이대취 큰스님 개인 명의로 된 전답 1900평을 현금 매입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하였을 뿐 아니라 자기 은사이기도 한 이대취 큰스님을 사기꾼으로 취급하여 문서상 기록 김상문(현업) 개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꾀하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전과자임(총무원에 비치된 가져본 내역 판결문, 부산 고법 형사 94고단 5833 참조)

- 3 변호사 입회하여 법원 검인된 이대취 큰스님 유언이 잘못되었다며 92년 2월에 있었다는 육주사 창건주 승계권 입증서를 93년 6월 21일 태고종 승적 취득자 김해진을 앞세워 날조하고 이대취 큰스님 유언수임 집행자 진우 비구스님을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지금 이 순간도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 4 상기 내용으로 인해 문도회 (재)이사회는 불신임으로 육주사 주지 임명장을 받지 못하자 사악한 방법을 동원하여 소송했지만 결과 모두 패소하였으며 96년 4월경, 당시 무권자 현업은 사실사람 등록서류를 날조, 송월주 총무원장 당시 육주사 주지 임명장을 받아 각종 사기 소송 행각 결과 모두 취하, 패소하고 현재 자격모용 사문서 동행사 소송 사기등 죄목으로(부산지법 형사 6단독 6133호)징역 3년을 구형받고 선고만 남아 있음.
- 5 또한 육주사 주지 확인 본안 소송 부산고법 98다 2549 판결에 의해 98년 12월 11일 강제 집행 자진퇴거된 자임을 이대취 문도회 명의로 공고합니다.
- 6 김상문(현업)은 이와같은 명명백백한 범죄사실의 치부를 감추고 파사현정 기치하에 어렵게 출범한 오고산 총무원장 큰스님 현 집행부에 접근하여 자신과 결탁한 도반스님과 다른 사람에게 이미 지법, 고법의 판결로 실체가 없어진 조계종 명의로 육주사 주지 임명장을 재발급 받아 또 다른 분규를 계획하고 있다하니 김상문(현업)과 인연이 깊은 대덕 스님 제반 사부대중은 육주사 분규의 제반 증빙서류가 총무원 총무부에 우송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고 유언수임 집행인이며 전국불자 서예인 협회 2대 회장직과 동국대학 불교대학원 10대 총학회장을 역임한 조계종 비구 진우스님을 육주사 주지로 모실것도 공고합니다.

이대취 큰스님 종친회 문도회, (재)육주회 육주사 원로 신도회 일동 합장  
재단법인 육주회 소속 육주사 (051)971-9412